하나님 필이 없다

(롬3:9~18)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필이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필이 꽂힌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끌리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가면서 장미에 필이 꽂혀서 장미만 보면 발걸음을 못 옮겨!'
'난 그 여자에게 첫 눈에 필이 꽂혔어! 그 여자와 사귀면 좋겠어!'
'요즘 나는 감자탕에 필이 꽂혀서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 이런 얘기들, 정말 느낌이 확 와 닿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여자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집니다, 마주보면서 걸어오던 남자에 필이 꽂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러지요.
보편적으로 가장 필이 많이 꽂히는 대상이 뭘까요? 돈! 그렇죠.
돈의 필요성에 눈뜨게 됩니다, 돈이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나도 돈을 벌어야지!’ 이게 필이 꽂히는 거예요.
강하게 어떤 것에 필이 꽂히면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필이 꽂히지 않는 일을 강요당할 때는 내가 지금 필이 꽂히는 일이 다른 게 있을 경우,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건성으로 대하게 됩니다.
마치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을 때 주사바늘이 따끔 하면서 들어가는 그 아픔을 잊도록 엉덩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잖아요? 그럴 때 찰싹 때리는 것에 필이 꽂히면서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아픔을 못 느끼는 것처럼.
이게 특징이에요, 마음이 하여간 어느 것에 필이 꽂히게 되면 나머지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거나 건성이 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필이 꽂힌다는 말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뜻이 그야말로 필이 꽂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인간 일반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공격적으로 폄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교리적으로 고백적으로 듣고 말하고 쓰는 그런 말이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봉사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십자가복음을 몰라도 많이 구제하면서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긍정의 힘이 진리처럼 통용되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주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 있음을 역설하고 있을까요?
늘 듣는 말이지만 뭐 이렇게까지, 70억 인구 중에서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을까?
없다고 칩시다, 우린 그걸 믿으니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죄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서 잊고 있잖아요? 내 죄를 잊고 있는 순간 복음은 무효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마음이 알고 있는 그 순간에만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받아들여진 복음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로써.

복음이 안고 있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라는 걸 알 때라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잊고 사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의 죄 됨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깊게 죄를 이해하잖아요? 복음을 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성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십자가복음을 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배우자를 대하고 싶으세요?
아내 남편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아내나 남편을 대하고, 기쁨의 소리가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 아내나 남편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기운 대신에 죄의 기운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만질 때, 아내를 만질 때,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 말할 때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사물에 대한 관계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기쁨의 소리인 복음의 기운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대할 수가 있고, 죄인임을 잊어버리면 복음의 기운이 상실된 상태에서 죄가 묻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것들과 관계를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내 마음이 죄를 알면 죄의 힘은 막히고 복음으로의 길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죄를 모르면 죄의 기운 아래서 죄를 사방에 묻히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잊지 말고 항상 그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어야 될 죄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죕니다.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앙고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눈뜨는 것이고, 마치 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돈 맛에 눈뜨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는 겁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 필이 꽂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에 대한 필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어떤 상태인가 하면, 정말 좋아하는 애인이 있는데 재벌기업으로 일으키신 할아버지와 물려받고 운영하시는 회장님이신 아버지가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상견례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재벌 3세, 마주 대하고 있는 모재벌 그룹의 아가씨에게 전혀 필이 없습니다, 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적용될 때 죄라는 겁니다.
필이 꽂히면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필이 꽂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돈에 필이 꽂히면 돈 벌려고 악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업 아이템에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 사업을 시작합니다.
멋진 남자를 보고 필이 꽂히면 얼굴이 빨개지고 옷매무새를 다듬게 됩니다.
길에 지나가다 예쁜 아이를 보면 필이 꽂혀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게 됩니다.

자, 필이 꽂혀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찾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까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즉, 내 마음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나도 좋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싫다고 느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 스스로가 좋고 나쁨을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필이 꽂히고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린 채로 필이 꽂히는 대상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한 여자에게 필이 꽂히면 아무리 아버지가 좋은 혼처를 들이대도 그 아가씨에게 필이 꽂히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필이 꽂히는 일들이 많다보니 하나님에 대한 필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는 죄의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정말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건 뭐 전과 17범 이상 되고 게다가 패륜적인 근성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나 어울릴 법한 묘사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표현들이 그냥 하나님께 필이 꽂히지 않고 죄 아래 있는 선남선녀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의미가 없는 말은 없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바울은 마음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목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혀가 있고 입술이 있다고 그렇게 그림처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무덤 입구라는 거예요.
무덤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습니다, 옥한음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정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끝났다는 얘깁니다.
죽음이 그런 뜻이에요.
시체라는 것은 그 몸을 쓰고 있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목구멍을 지나서 그 안에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뿐이라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필이 꽂힌 상태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시체라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야지, 아주 멋진 비전 아닙니까? 이게 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이 꽂힌 상태에서 생긴 비전이 아니면 다 무덤 안에 있는 썩어가는 시체, 해골인 거예요.
선남선녀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소원을 가져도 열린 무덤인 겁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제 내가 그렇게 속였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뒤로는 하나님에 대한 필이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필이 꽂히지 않은 상태로 내가

말을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 삶과 내가 만나는 이웃의 삶과 내 아내의 삶과 내 자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필이 꽂혀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들어간 거짓말쟁이들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임을 일삼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모르면서 속이며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이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대학을 못 들어가면 사람 노릇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못 산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어!' 이런 가치판단이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독사가 되어서 자식을 깨물어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식 또한 '아,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선남선녀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사세요, 잘 사세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처지인가 하면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처지입니다.
이 멸망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오래오래 잘 먹고 살라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빨리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되기를 바랍니다!' 선남선녀들이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다 저주고 악독이라는 겁니다.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이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가령 내 자식이 있다면,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필이 꽂히지 않았으므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발을 맞춰가면서 자식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들 유학 보낸다니까 조기유학을 보냅니다.
남들이 이 학원 보낸다니까 이 학원 보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식의 모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자식의 본래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리는 데에 빠른 거라는 뜻입니다.
결국 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부터 저주 아래 놓이게 된 모든 인간, 선남선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필을 상실하면서 아무리 좋은 생각, 거룩하다고 느껴지는 생각, 선한 생각,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다 그것은 악독한 것이고 저주고 속임수고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단절되어진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내는 날이 없는 겁니다.
왜?
마지막 절에,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필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생각은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말이고 다 속임수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저주와 악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잘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는 바람에 내 머리가 stop 되고,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나가듯이 내 마음의 살점이 떨어져나가도록 얻어맞는 십자가에 매달림이 없이는 이 죄악 됨의 현실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인간을 지독하게 폄하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는 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향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속임수를 일삼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얘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죄가 묻어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죄의 업을 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께 필이 꽂히는 그 상태를 향하여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내 입술은 거짓말을 할 뿐이며 독사의 독을 머금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필을 꼭 회복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